

SK스토아 매각 제동... SKT, 'AI 전환' 걸림돌

라포랩스와 계약 조건 손질
지분 전부 매각 계획 철회하고
일정 지분 보유 구조로 변경
자금 회수 줄고 리스크 늘어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컴퍼니' 전환을 위한 사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면서 자회사인 SK스토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등을 이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매각 작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17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커머스 스타트업 라포랩스와 SK스토아 계약건을 두고 조건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SK스토아의 지분 전부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일정 지분은 보유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라포랩스와 약 1100억원 규모의 SK스토아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SK스토아는 SK텔레콤의 완전 자회사로, 녹화 방송 기반의 데이터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 때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며 SK텔레콤의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한 효자 자회사이기도 했다.

인수 발표 당시 시장에서는 SK스토아



정재현 SKT 대표이사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AI 프로젝트 착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의 핵심 고객층이 라포랩스의 주력 고객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이 었다. 라포랩스는 패션 플랫폼 '윈잇'을 통해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소외된 4050 여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 매출 3000억원대 대기업 계열사가 적자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스타트업에 매각하는 것을 우려했다. 무리한 인수합병(M&A)이 결국 SK스토아의 유동성 위기를 낳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홈쇼핑과 같이 방송법 규제를 받는 방송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최종 승인 없이는 매각을 통한 소

유권 이전이 불가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정부의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라포랩스가 자발적으로 인수 승인 신청을 취하하고 거래 구조를 바꾸는데 합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라포랩스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의식해 무차입을 재원 조달을 유지하고, SK텔레콤은 일부 지분을 유지해 경영 안전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달 방미통위에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을 마친 상태다.

SK텔레콤이 소수 지분을 남기게 될 경우 자금 회수 규모는 1100억원 보다 낮아

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SK스토아의 수 많은 중소 협력사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등 리스크를 모회사로서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부담도 발생한다.

SK브로드밴드(SK스토아 지부) 노동조합원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노조원들은 지난 8월 규탄 시위에서 라포랩스계약 파기 요구와 함께 경영 관여 의혹 등을 방미통위가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라포랩스의 최희민 공동대표는 SK텔레콤 출신으로 밀어주기식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회사 측은 억측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노조원들은 SK스토아 매각을 두고 일제히 SK텔레콤이 계열사 숫자를 줄이려는 졸속 매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SK스토아 매각은 최근 단행하는 AI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에도 걸림돌이다. SK텔레콤은 최근 AI 폴스택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글로벌 자본과 결합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지난 8월 AI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사업을 전담하는 SK호라이즌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약 7500억원의 자본이 투입된 'SK하이퍼'를 설립해 AI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현금을 투자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도쿄게임쇼 2026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왼쪽)와 스마일게이트 이노주 마케팅 이사가 17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도쿄게임쇼 2026(TGS 2026)'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빛나 기자

스마일게이트 성준호 대표, 현장서 신작 2종 반응 살펴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가 '도쿄게임쇼 2026(TGS 2026)' 현장을 찾아 올해 선보인 신작 2종에 대한 현지 이용자들의 반응을 직접 살폈다.

17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TGS 2026 현장에서 만난 성준호 대표는 올해 출품한 신작 시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직접 확인했다며 일본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대표는 "일본은 세계 3위 규모의 게임 시장이자, 소니·닌텐도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세계적인 개발사들이 자리한 게임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라며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사업 확대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현장에서 신작 시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일본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올해 TGS에서 신작 '마래시: 보이지 않는 마래'와 '데드 어카운트: 두 개의 푸른 불꽃'을 선보였다. 두 작품 모두 현장에 시연 공간을 마련해 관객들이 직접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일본)=최빛나 기자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예측·설계 재미 강조

임종규다나미스원 게임디렉터(GD)가 17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도쿄게임쇼(TGS) 2026' 미디어 프리뷰에서 신작 '아스트라에 오라티오'의 전투 시스템에 대해 "반사신경을 발휘하는 게임이 아니라 예측하고 설계하는 재미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에 오라티오는 엔씨가 퍼블리싱하고 다나미스원이 개발 중인 신전기 마법 RPG다. 가상의 역사 속 도표를 배경으로 정체를 감추고 살아가는 마법사와 이들을 관리하는 기관 '특구청'의 이야기 그린다.

핵심 차별점은 탄젠트와 실시간 전투의 결합이다. 적의 다음 행동을 파악한 뒤 스킬과 캐릭터를 선택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반사신경보다 예측과 전략에 무게를 뒀다.

게임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서브컬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도표를 무대로 택한 것도 장르적 선택이다.

/도쿄(일본)=최빛나 기자

KT, 전북에 다크팩토리 구축 “채팅플러스 PC버전 쓰고 경품 받으세요”

과기부 과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모듈형 엣지 AIDC서 '심 레디' 구현

KT가 정부와 제조 AX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 기반 다크팩토리 설계·구축 솔루션 개발' 과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지능 피지컬AI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 세부 과제 중 하나다. 사업 목적은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다크팩토리 인프라를 구현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KT를 비롯해 카이스트, LG에너지솔루션, 하림산업, 신성이엔지,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참여한다.

KT는 이번 사업에서 모듈형 엣지 AIDC 인프라 기반에서 심 레디를 구현하고, 디지털 합성 데이터 생성·검증 체계 및 에이전트 운영통합 환경도 연구·개발

한다.

시뮬레이션 레디로 통하는 '심 레디'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분야에서 핵심 요소로 주목받는 3D 데이터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한 AI 에이전트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들을 해소하는게 목표다. 또 다크팩토리 환경에서 필수 운용 환경, 관제 체계 구축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KT는사업 참여기업의 제조 현장에서 모듈형 엣지 AI 데이터센터와 다크팩토리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데이터와 학습 모델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능 개선 구조를 뜻하는 데이터 플라이휠도 실증에 포함된다.

또한 실증을 통해 쌓은 역량을 산업 맞춤형 피지컬 AI 솔루션으로 상품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AX 경험을 토대로 해외 제조 AI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SKT, 내달 16일까지 추천·설치 행사
총 2000만원 상당의 경품 제공

SK텔레콤은 다음달 16일까지 채팅플러스 PC버전 추천·설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채팅플러스 PC버전은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PC용 문자 메시지 서비스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SK텔레콤 고객은 PC에서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채팅플러스 PC버전 이용 고객 약 500명 중 84%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평균 5일 이상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응답자

는 83%에 달했다.

또한 키보드를 활용한 문자 작성의 편리함과 스마트폰과의 메시지 연동, 다른 PC작업과 병행 등 편의성을 주요 강점으로 꼽았다.

이에 SK텔레콤은 총 2000만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행사는 추천, 설치 총 2가지로 나뉜다. 추천 이벤트는 신규 고객에게 이벤트 페이지에서 받은 전용 URL을 공유하고, 추천을 받은 고객은 이벤트에 응모한 뒤 PC 프로그램 설치와 휴대폰 연동을 완료하면 된다.

설치 이벤트는 채팅플러스 PC버전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이벤트에 응모한 뒤 PC 프로그램 설치와 휴대폰 연동을 완료하면 된다. /조민선 기자

LG U+ 임직원, 국제기능올림픽 감독 맡아

클라우드컴퓨팅 종목 대표 감독

LG유플러스는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에 자사 임직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인 경연대회다. 올해는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 세계 70여개 국가·지역에서 선수와 국제지도위원 등 약 14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종목은 정보통신기술(ICT), 기계, 건설 등 64개다.

클라우드컴퓨팅 종목에서는 참가자가 제한된 시간 안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IT 인프라를 설계·구축·운영하는 능력을 겨룬다. 각국 대표 선수는 4일 간 매일 다른 과



제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순위를 겨룬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7개 국가가 참여했다.

한국 국가대표 감독은 LG유플러스 U큐브 DAX팀 소속 배우혁 기술 책임(사진)이 맡는다. 배 책임이 클라우드컴퓨팅 국가대표팀을 맡는 건 올해로 세번째다. 특히 2024년 프랑스 라옹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서는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획득하는데 기여했다. 이듬해 열린 아시아기능올림픽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 종목 심사장을 맡아 활약했다. 한편 올해 상하이 대회에서 한국은 20번째 종합우승에 도전한다.

/조민선 기자

카카오, 소액주주 인적분할 청사진 제시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목표”

카카오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인적분할 추진 배경과 향후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카카오는 지난 16일 소액주주 대상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인적분할의 추진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분할 이후 카카오AI와 카카오X의 비전 및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는 인적분할의 핵심 배경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실행 속도 확보'와 '최적의 자본 배분 체계 구축'을 꼽았다. 특성과 성장 단계가 다른 사업을 분리해 각 회사가 핵심 성장 과제에 집중하고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이사 내정자는 “이번 인적분할의 목적은 각 사업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효율화하며 각 사가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